

제33호

발행일 : 서기 2015년 3월 28일(월)
창간일 : 서기 2000년 8월 25일
구독신청 : (02) 836-5631
FAX : (02) 833-9401
H.P : 010-9189-4078

安東金氏 翼元公派宗會報

발행인 : 김 석 한
편집인 : 김 영 수
발행처 : 안동김씨익원공파종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2동 1057-33
인쇄인 : 김 성 회
사무실 전화번호 : (02) 836-5631
사무국장 휴대전화 : 010-9189-4078

신년사(新年辭)



회장 김석한

존경하고 사랑하는 종친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올미년을 보내고 희망찬 병신년을 맞이하여 종친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고 소망하시는 일마다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경제위기들이 있었으나,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정진하여 힘차게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저 또한 내일의

일을 알고자 한다면 어제의 일을 살펴보라는 선현의 말씀을 거울삼아 본 종회의 현안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종친회 발전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전념하는 한해를 보냈습니다.

1. 종인 여러분께서 기다리시던 대동보가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준비와 편집과정에서 노고가 많으셨던 수단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통을 지키고 조상의 뿌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중한 자료인 족보의 발간을 통해 익원공 종문의 역사를 앞으로도 소중히 간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회관 건물의 보수공사가 마감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예산보다 훨씬 적은 3천만원 이내의 합리적인 금액으로 공사를 완공한 것은 물론, 그동안 노후화로 인해 불편했던 점들을 깨끗하게 개선하였습니다. 이제 종친회 사무실인 동시에 오고 가는 종친 여러분의 편안한 쉼터로도 손색이 없게 되었습니다.

3. 본 종회의 청렴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모든 회계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작은 지출에서부터 큰 예산집행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지출과 정에서의 효율성 또한 높였습니다. 투명한 정리를 통해 이해하기 쉽도록 하여, 누구에게나 신뢰받는 회계 원칙을 확립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들은 전 종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앞으로 저를 비롯한 사무국 직원과 종회의 일을 처리하는 어떤 종인일지라도 투명하지 못한 행위로 종회 발전에 해를 끼칠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지난 2013년부터 익원공 회장직을 맡아, 3년동안 종회의 중요한 제례행사 때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응원과 이심전심으로 전해주시는 메시지를 우리 종회가 나아갈 방향이자 지표라고 생각하며, 나름대로 종회 발전과 화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존경하는 종친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종친회가 해마다 더욱 발전하고 최고의 명문으로 전통을 이어나가면서 후손들에게도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더욱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 또한 한 채의 집을 짓듯이 익원공파종회라는 울타리에서 화합과 협력으로 저에게 주어진 역할에 마무리 임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신년 새해에 새로이 품은 꿈들을 모두 달성하셔서 일신과 가정과 문중의 발전 이루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3월 9일 · 익원공파종회 회장 김석한

“자랑스런 안동김씨 가문의 역사책인 족보(대동보)를 구입해서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족보(대동보)가 오랜 기간 끝에 족보책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교정과 검토를 통해 완전한 족보책을 완성시키기 위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묵묵히 참아주시는 종인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족보책 가격이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대동보 - 수권 1질 + 손록 11질 = 계 12질 (가격 550,000원)

2. 익원공파보 - 수권 1질 + 손록 3질 = 계 4질 (가격 220,000원)

위에 가격을 참고하셔서 먼저 예약금을 내신분은 그예약금을 공제하고 잔금을 불입하시고 예약을 안하신분도 이번에 전액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대금이 완납된 후 족보 인쇄 신청을 하게 되어 있으니 2016년 4월 15일까지는 완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한내 대금이 납부되지 않을시 구입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마감하겠으니 4월 15일까지 대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대보1질 50,000원, 파보1질 30,000원 예약금 입금하신분”

* 대보가격 12질 550,000원-50,000원(예약금)=500,000원(주문시 입금)

* 익원공파보 4질 220,000원-30,000원(예약금)=190,000(주문시입금)

만약 먼저 예약하고 이번에 잔금을 안내시면 책족보를 안사시는 것으로 간주하고 책족보 인쇄요청에서 제외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금 불입시 유의사항” (연락처: 사무실 02)836-5631)

입금표에 보내시는분, 성명란에 여기서 부여한 고유번호를(문12, 호 5, 목123) 꼭 기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종인들이 동명2인이 많아 성명만 기록하면 입금통장에 성명만 나타나기때문에 대금납부정리가 어려우니 고유번호를 이름 앞에 써주시고 “고유번호가 없는 분은 이름 앞에 지역은 강릉, 청주등으로 소파명은 문, 호, 목으로 총6자이내로 기재(통장금액앞에 6자까지만 나타나기때문)

「입금할계좌번호 : 농협 355-0013-0646-73 안동김씨익원공파 종회」

입금할 때 (무통장입금, 타행송금, CMS, 수표발행)		입금일자	입금금액	입금인
입금표 기재예시		* 고유번호를 부여 받았을시, 보내는분 성명란에 총6자이내		
계좌번호 (Payment No.)	355-0013-0646-73	성명 (Name)	문.호.목.36	지음만기재
금 액 (Amount)	금 190,000원	보내는분 주민등록번호 (신원번호)	36- - - - -	
반드시 본 안동김씨익원공파종회	입금은행 (지점명)	CMS		
수표발행할 원하시는 경우	1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안동김씨익원공파 총회 제47차 정기총회 개최



서기 2016년 3월 14일(월요일) 11시부터 안동김씨익원공파총회 제47차 정기총회가 200여 종친과 대총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광진구 소재 한강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내빈소

개에 이어 시상부분에 효자효부상을 받은 대구 목사공 김영화·전임 순부부는 편모를 50여년간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있고 선조님 선양사업에도 솔선봉사하여 부족한 살림에도 금일천오백여만원의 재실증수에 기증하는등 종인들의 칭송이 자자하여 수상하였으며 부산 효소공 김재원, 수원 문정공 김태철 2사람도 종사에 헌신봉사하고 종인간 화합과 친목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공로패를 수상하여 참석 종인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 이어 회장인사를 통해 3년간 업적으로 종인간 화합을 이루어 종사 참여율을 제고시켰으며 파총회 사무국의 회계질서를 투명하게 기틀을 확고하게 다져냈으며 회관 리모델링에서도 본예산을 절감해가며 많은 일을 했다고 평가를 한다는 말씀으로 끝을 맺

고 임원개선에는 임시의장으로 부회장 김재영님의 의사진행으로 현 김석한 회장이 19대 회장에 이어 20대 회장으로 연임이 이사회에이여 만장일치로 인준되었다.



2015년도회계 결산안과 2016년도 수입 지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며 족보대금은 대보(대동보)12권 (수권1권, 손록11권)에 550,000원, 파보 4권(수권1권, 손록3권)에 220,000만원으로 이사회의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이날 수상자와 내빈에 증정된 모피담요 10개(깃가 100,000원 상당)와 참석자 전원에게 지급된 담요 200여개 역시 44,000원 가격을 반가격으로 22,000원으로 지급, 총 5,000,000원상당의 상품을 회장으로 부터 기증받았다.

회의 종료후 호텔 연회장에 마련된 음식을 나누면서 환담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어 각소파별로 정기총회를 속개하는등 바쁜일정으로 하루를 보냈다.

효소공 정기 총회 개최



서기 2016년 3월 17일(수요일) 11시 강원도 춘천 오부자 닭갈비집에서 100여명의 종인이 참석한 가운데 회순에 의거 2015년도 회계결산과 2016년도 예산안을 이사회를 거쳐 원안대로 통과하고 임원 개선에서는

오랫동안 회장을 역임하던 김재광 회장의 사임으로 이사회에서 추대 받은 김용목회장을 만장일치로 찬성해 선임회장에 선임되었으며 감사 총무는 유임되었다. 김용목회장은 익원공파총회 부회장을 역임한 사명감이 투철하고 선조님 선양사업에 솔선 봉사하는분으로 우리문중에서 칭송이 자자한분이다. 이날 효소공 정기총회를 축하하는 화환을 안동김씨익원공파총회 회장 김석한과 문정공 김근식 회장이 보내와 종친간의 돈목을 돈독히하는 자리가 되었다.

2016년 3월14일 제47차 정기총회 찬조금 내역

(단위:원)

번호	성명	주소	찬조금	비고
1	김석한	안동김씨익원공파총회 회장	1,000,000	
2	김수백	좌랑공 파총회 고문	1,000,000	백범김구선생 흉보비
3	김대식	고창 좌랑공	200,000	
4	김삼량	고창 좌랑공 회장	200,000	
5	김실경	옥사공 회장	200,000	
6	태안종친회	목사공 총회	200,000	
7	참의공총회	문정공 수원 참의공 종중	200,000	
8	김재용	파총회 고문 문정공	200,000	
9	김재훈	양주 덕정 고문 전첨공	100,000	
10	김영수	파총회 사무총장	100,000	
11	김중원	동추공 회장	100,000	
12	문영공총회	문영공 총회	100,000	
13	김재원	부산 북구 효소공	100,000	
14	김용세	당진 파총회 고문	100,000	
15	김재만	동두천 광안동 전첨공	50,000	
16	김재원	중구 신당동 파총회 부회장	50,000	
17	김인회	전남함평 목사공	30,000	
18	이목중중	문정공 이목중중	100,000	
19	김봉희	참의공 이사 충남 천안	300,000	
20	김윤목	효소공 파총회부회장	100,000	
21	김용문	청주 종덕구 효소공	100,000	
22	김태길	청주 상당구 효소공	100,000	
23	김태철	수원 문정공	100,000	
24	김재식	동대문구 전첨공 회장	100,000	
25	김훈식	춘천 효소공	50,000	
26	김성희	충남 부여 효소공	50,000	
27	김용우	춘천 효소공	50,000	
28	김철희	강릉 목사공	40,000	
29	김용호	풍양군 회장	100,000	
30	김창식	문정공	100,000	

번호	성명	주소	찬조금	비고
31	안산대사헌총회	문정공	100,000	
32	김영채	강릉 효소공	100,000	
33	김근식	문정공 회장	100,000	
34	김재진	충남 당진	100,000	
35	김재남	익원공 부회장 효소공	100,000	
36	김재영	익원공 부회장 문정공	100,000	
37	김근식	파주 문정공	100,000	
38	김상근	대총회사무총장	100,000	
39	김영환	문영공 감사	50,000	
40	김영준	계룡시 문정공	50,000	
41	김종희	태안 어린이집 목사공	100,000	
42	김태권	태안 안면대로	50,000	
43	김봉희	대총회장	100,000	
44	김지묵	강원도 홍천 효소공	50,000	
45	김태신	중구 신당동 목사공	100,000	
46	김문원	익원공 고문 목사공	100,000	
47	김태규	상주시 익원공 부회장	100,000	
48	김태웅	남양주 진접 효소공	30,000	
49	강화문정공총친회	강화문정공 총친회	100,000	
50	김재현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목사공	50,000	
51	김재범	남양주 오남리 목사공	50,000	
52	김용식	일원동 청송빌라	100,000	
53	김흥희	관악구 목사공	30,000	
54	김효식	안동 문정공	50,000	
55	김태섭	동작구 문정공	30,000	
56	김삼량	고창군 좌랑공파 회장	100,000	
57	김영화	대구 이사 목사공	100,000	
58	김용대	효소공 파총회 이사	100,000	
59	김재광(廣)	목사공	100,000	

익원공휘 사형 제608주기 및 밀직사사공 제579주기 향사 봉행

서기 2015년 11월 17일(음 10월 6일)에 경기도 양평군 목왕리 산49번지 익원공 묘역에서 전국 각지에서 200여명의 제관이 참석한 가운데 초헌관에는 김삼량(부령공. 고창) 아헌관에 김용주(안렴사공. 서울) 종헌관에 김재동(효소공. 서울) 김재영 부회장의 집례하에 질서정연하고 엄숙하게 제례행사가 봉행되었으며, 당진 김용세 고문께서는 수년전부터 손수빚은 약주 백련맑은술(2015년 품평회에서 최우수 수상품)을 보내와 제주로 올린 후 제관들께서 음복주로 드시면서 짧은 시간이나마 화기에애하고 정겨운

종친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이어 밀직사사공 제례에는 초헌관 김창식(문정공. 용인), 아헌관 김영채(목사공. 강릉), 종헌관에 김태규(문정공. 상주)님 등 분정되어 김재영(부회장. 수원)님의 집례하에 향사를 봉행하였다.

점심은 낙포재(익원공 재실)에서 제주로 올렸던 백련맑은술을 마음껏 드시면서 정겨운 담소를 나누고 종친간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보낸후 다음에 만날것을 기약하며 귀향길에 올랐다.



승의전 한식대제 봉행계획



2016년 4월 3일(일요일) 11시에 연천군 미산면 승의전 마당에서 연천군과 개성왕씨 중앙종친회(사) 승의전 보존회가 주관하는 한식대제 제례행사가 봉행된다. 행사에 앞서 30분간 제례봉행에 대한 설명으로 국궁 4배 및 집합 패용 등 고려왕실의 의례에 따라 대제봉행이 시작되는데 전국에서 온참가자와 헌관, 분헌관, 제관이 엄숙히 도열한 가운데 집례

자의 창홀에 따라 고려의식으로 한시간 동안 장엄하게 진행된다. 고려태조와 고려3왕의 제례 봉행이 끝나면 배신청에 모셔있는 16공신 분헌관으로 작년에는 문정공회장 김근식에 이어 금년에는 김영수 사무총장이 분헌관으로 안동김씨 대표로 충렬공증시조님께 헌작을 하게 된다.



제608주기 익원공 휘. 김사형 향사 향족대 현황

번호	성명	금액	비고
1	김석한	1,000,000	익원공파 총회 회장
2	김선희	200,000	익원공파 총회 명예회장
3	좌랑공 총회	200,000	좌랑공 총회 고창
4	김재남	200,000	효소공(부회장)
5	김성희	200,000	참의공(수원)
6	김광희	200,000	용인시종친회(문정공)
7	김재광	200,000	목사공
8	김근식	100,000	문정공 회장(부회장)
9	김재영	100,000	문정공 수원(부회장)
10	김재동	100,000	서울 강서구 방화동
11	김창식	100,000	용인시(문정공)
12	김재선	100,000	전철공 서울 광진구
13	김재식	100,000	전철공회장 서울
14	김재원	100,000	효소공 부산
15	안동김씨대총회	100,000	안동김씨 대총회
16	김용대	100,000	효소공 고문
17	안산시(목)총중	100,000	문정공 안산
18	김상희	100,000	참의공 충남 서천
19	김근식	100,000	문정공 경기 파주
20	김태규	100,000	익원공파
21	김창희	100,000	풍양군 서울 마포(현목)
22	김재용	100,000	문정공 고문
23	김문원	100,000	목사공 서울 중구
24	대경공총회	100,000	경기 동두천 탑동
25	김중원	100,000	동추공 회장 목사공 대구
26	김영화	100,000	목사공 대구 수성구
27	대구익원공파총회	100,000	대구익원공파 총회
28	강화종친회	100,000	익원공파 강화종친회 문정공
29	춘천종친회	100,000	춘천종친회 문정공
30	문정공총회	100,000	문정공총회
31	김영채	100,000	목사공 강원도 양양
32	김재형	100,000	목사공(부회장) 강릉
33	효소공 총회	100,000	남양주 팔아리

번호	성명	금액	비고
34	김삼량	100,000	좌랑공총회 회장 고창
35	김철교	100,000	효소공 충북
36	김용국	100,000	효소공 청주(부회장)
37	김태길	100,000	효서공 청주
38	김영목	100,000	문정공 회장
39	청주종친회회장	100,000	김태길 청주 종친회
40	안렴사공 총회	100,000	안렴사공 총회
41	김재진	100,000	문정공 당진
42	김성희	50,000	효소공 부여
43	김영환	50,000	효소공 서울 동작구
44	김승희	50,000	효소공 진접
45	김재관	50,000	전철공 마포
46	김태근	50,000	효소공 서울 성북구
47	김수환	50,000	문정공 용인
48	김준목	50,000	목사공 부산 진구
49	김태철	50,000	문정공 수원
50	김태영	50,000	충주
51	김근진	50,000	효소공 수원
52	김태신	50,000	목사공 서울 중구
53	김용서	50,000	효소공 서울
54	김용준	50,000	대총회 감사
55	김성식	50,000	참의공 경기 이천
56	김용식	50,000	참의공 서울 강동
57	김대진	50,000	참의공 서울 영등포
58	김정목	50,000	목사공 경북 경산
59	김지목	50,000	효소공 홍천
60	김재광	50,000	효소공 고문
61	김동희	50,000	좌랑공 고창
62	김수창	50,000	좌랑공 고창
63	김재봉	50,000	효소공 남양주
64	김영옥	50,000	효소공 서울 불광동
65	김수목	50,000	문정공 남양주
66	김선희	50,000	문정공 당진

2016년 2월의 호국인물 김방경 장군선정



대한민국 전쟁기념협회주관으로 호국인물 2,000여분중 매월 한분씩 선정하여 전쟁기념관 현관에 영정을 모시고 한달동안 분양소를 설치하고 호국인물의 위업을 그리며 상기는 뜻으로 행사를 하는데 우리중시조이신 충렬공 김방경장군이 2월의 호국인물로 선정되었다. 안동김씨 중시조이신 충렬공 김방경장군은 고려후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안동이며 자는 본연(本然)이시고諡號

는 忠烈이시며 신라경순왕의 후손으로 한림학사 김효인의 아들이시다. 어려서부터 성품이 강직하시고 도량이 넓었다. 1229년 음서(蔭紱)로 산원겸 식목 녹사가되어 벼슬길에 올라 1247년에 서북면 병마판관이 되었을때 몽골이 침략하자 백성들과 함께 위도에 들어가 장기전을 펼칠 수 있도록 저수지와 제방을 축조하고 농토를 개간하는등 안정적인 토대를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몽골 침입에 맞설 최전선의 전초기지를 확보하는데 큰성과를 거두었다.

그후 상장으로 임명되었고 한때 모함을 받아 남경유수로 좌천되었지만 서북지역 여러성에서 몽골침입때 선정을 베푼 공으로 서북면병마사가 되었다가 저정으로 들어와 형부상서 추밀원부사를 역임했다.

1270년 원종이 다시 복귀되고 개경 환도를 결정함에따라 대몽항쟁의 주력

이었던 삼별초가 해산이 결정되어 이에 반기를 들고 일으킨 삼별초의 난을 정부의 명을받고 김방경장군이 이들을 진압하였다.

1274년 원나라가 함포에 정동행성을 설치하고 일본정벌을 시도함에 따라 고려군 8,000명을 이끌고 려·원연합군의 중군장으로 출장했다.

일본원정이 원 주도하에 시작되었지만 실제전투에서는 김방경장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려·원연합군은 쓰시마를 정벌하고 본토로 진격했으나 풍랑으로 패하고 돌아왔다.

1291년 원나라가 재차 일본정벌을 계획하자 고려군의 도원수로 병력을 지휘하여 하카다에 이르렀으나 역시 태풍을 만나고 기습당해 패전하고 돌아와서 패전의 책임을 지고 이후 벼슬을 사양했으나 1287년 추증정난정원공신의 봉호를 받는다. 뒤이어 삼중대광참의중찬판전리사사 세자사가 되었으며, 참의령에 오르고 상락군 개국공식읍일천호 식실봉 삼백호에 봉작되었다. 사후에는 벽삼삼한삼중대광에 추증되었으며 왕명에 의해 신도비가 세워졌다.



자랑스러운 익원공 후에 김용세

신평면 면사무소 소재지에 위치한 신평양조장은 1933년 김순식 대표가 창립, 2대 김용세 회장에 이어 그 아들(김동교)이 3대 째 막걸리를 빚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오래된 양조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평양조장의 대표제품인 백련막걸리는 지난 2008년 청와대 만찬주에 선정되었고, 약자인 백련맑은술을 2014년 삼성그룹 회장 생일상 건배주로 사용되면서 세간에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주 품평회인 '우리슬품평회' 살균막걸리 부문에서 대상('12년, '15년), 생막걸리 부문에서 대상('14년), 최우수상('15년)을 각각 수상하면서 그 맛과 품질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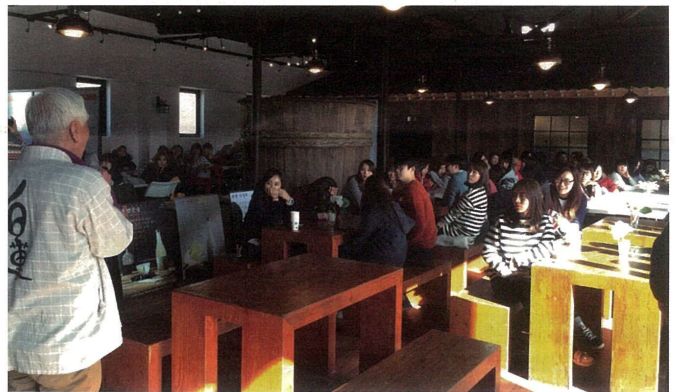
2015년 5월에는 한국의 대표 예능프로그램인 KBS 1박2일에서 충청도를 대표하는 양조장으로서 방영되면서 대중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으며 최근에는 한류 걸그룹 멤버가 주연으로 하는 영화의 촬영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충남 당진의 작은 동네 양조장이 이렇게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는 데에는 신평양조장이 그동안 보여준 차별화된 경영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09년에는 그동안 우

리나라 막걸리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유리병에 담긴 막걸리를 출시하기도 했고, 2011년에는 지역 양조장 최초로 직접 운영하는 고급 '막걸리바'를 서울의 젊은 패션거리에 오픈하여 많은 이슈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올해에는 막걸리 빚기 체험, 전통주 강의 등을 운영하는 공간인 '백련원·신평양조장 양조문화원'을 오픈하여 외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어 외국에서나 볼 법한 '와이너리 투어' 문화를 충

남의 작은 양조장에서 선도하고 있습니다.



신평양조장 양조문화원에 들어가면 인사말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
지금도 술은 그렇게 익어가고 있고
지금의 우리들 역시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일구어 놓은
삶의 흔적을 물려받아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버지들이 어떻게 술을 빚어 즐겨왔고
어떤 마음으로 술 한잔 기울이셨는지 헤아려 보는 것이
오랫동안 이어온 술의 '전통'을 마주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
우리의 아버지세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살아온 흔적을 느낄 수 있는 문화적 콘텐츠를 바탕으로 새로운 젊은 세대에게 전통 막걸리 문화를 알리고자하는 김용세 회장의 열정과 사업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신평양조장이 앞으로도 200년, 300년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술의 명가로 영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홈페이지 www.koreansul.co.kr

전화 041-362-6080

이메일 bupwha1933@naver.com